실속 재테크

신용카드 포인트 일석이조

이자 붙는 포인트…현금처럼 뽑아 쓴다

물건 구입은 기본에 기부 통한 '사랑의 펀드'도

금융사, 실속파 겨냥 통합포인트 카드 속속 도입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됐지만, 특정 가맹점 외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점을 아쉬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런 실속파들을 겨냥해 금융사들이 통합포인트 카드를 내놓고 있다. 금융그룹사들을 중심으로 계열사 간 협력 마케팅에 의해 포인트를 통합해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재테크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카드포인트로 물건을 사는 자판기도 등장했다.

신한금융의 'S-MORE' 포인트는 금융그룹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포인트 제도다. 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에 최고 연 4%의 이자를 제공한다. 보통 적립된 포인트는 캐시백이나 소비에 국한됐지만 이 카드는 포인트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포인트 통장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통장은 다른 거래는 할 수 없는 포인트 적립 전용통장이다. 기본 연 1%의 금리를 제공하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 계좌가 다른 신한은행이나 신한금융투자 통장으로 돼 있으면 추가로 연 3%의 금리를 제공한다. 포인트 전용 통장에 적립된 포인트는 금액에 상관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다양한 자체 상품을 보유한 쇼핑몰에 더해 G마켓, 옥션 등 주요 인터넷쇼핑몰에서도 자체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포인트 기부를 받는 사랑의 펀드도 별도로 운영한다.

외환은행도 '통합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외환카드 거래 시에만 부여되던 포인트 제도를 확대해 예금, 대출, 환전 등 은행 거래 시에도 포인트 적립과 사용을 가능케 했다.

은행 및 카드 거래를 동시에 하면 포인트를 최대 2배까지 적립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과의 거래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추가로 포인트가 쌓인다. 은행 거래와 카드거래 실적에 따라 각각의 포인트를 합산해 각종수수료 납부, 적금 납입 등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현대카드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에어라운지에 포인트 벤딩머신을 만들었다. 카드포인트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자판기다. 현대카드 M포인트 보유 고객은 이 벤딩머신을 통해 여행용품부터 선물까지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M포인트와 교환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자체 M포인트몰에 아이폰을 입점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M포인트 적립통장-오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월 2%, 연간 24%에 이르는 이자 포인트를 추가로 쌓아준다.

우리금융은 그룹 내 계열사별 거래 규모를 합산해 차등화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보너스패밀리'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파이낸셜의 거래 실적을 합산해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증권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면서 프라이빗뱅킹(PB) 센터 전용 복합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추가로 kdb생명, 대우증권과 연계해 은행·증권·보험을 아우르는 복합금융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무등산 수박' 맛보세요 26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무등산 수박'을 선보였다. '무등산 수박'은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B·C가 풍부해 신진대사를 촉진해 성인병 예방과 당뇨병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상 릴레이

7~8월 38곳 올라 4.25%대…시중은행 인하와 대조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으로 지난 6월말 이후 예금 금리를 인상한 저축은행은 모두 38곳이다. 전체 저축은행 105곳의 36.2%가 금리를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6월말 연 4.15%였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5일 현재 4.2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초만 해도 5%를 웃돌던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4월 들어 4%대로 내려갔다가 5월말부터 역대 최저치인 4.14%를 한 달 반가량 유지한 뒤 지난달 초부터 속속 인상되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대거 매수함으로써 은행채 금리가 하락한 영향을 받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새누리저축은행은 예금 금리를 4.2%에서 4.8%로 0.6%포인트나 올렸고, 서울저축은행은 4.3%에서 4.6%로 0.3%포인트 인상했다.

교원나라, W, 삼화, 신민, 신안, 제일, 진흥, 푸른, 푸른2, 현대스위스, 영남, 남양, 신라, 인천 등 14개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를 4.5%로 올렸고, 대영, 스카이, 한신, 부산HK, 삼정, 안양, 인성, SC스탠다드 등 8개 저축은행은 4.4%로 인상했다.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은 지난 6월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해 부실을 상당 부분 털어낸 이후 본격적인 사업 재개를 위해 저금리 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또 향후 금리 상승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저축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 움직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다만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연 8%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당분간 인상 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출하량은 줄고 학교 급식물량은 늘고…

채소값 여전히 고공행진

시금치, 상추, 대파 등 채소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생육 부진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반면 학교 개학 등으로 급식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6일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광주지역 시금치(상품·4kg) 도매가격은 4만5000원으로 일주일 사이 40.6%나 급등했다.

3만7000원에 상추(상품·4kg)도 일주일 사이 48.6%나 오르면서 5만5000원에 거래됐다.

풋고추(상품·10kg)도 같은 기간 25.0%가 올라 3만5000원에, 대파(상품·1kg)는 22.2% 상승해 2200원에 판매됐다.

2만4000원에 판매됐던 애호박(상품·8kg)은 25% 오른 5만원에 거래됐으며 양배추(상품·10kg) 일주일 사이 25%가 뛰어 3만원에 팔렸다.

깻잎(상품·2kg)도 일주일 사이 25% 올라 2만5000원에 거래됐다.

토마토(상품·10kg)도 잦은 비로 출하량이 줄면서 25% 가량 오른 2만5000원에, 출하 끝무렵인 참외(상품·15kg)는 8.6% 올라 5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복숭아,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큰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고령화 시대 '100세 보험' 봇물

고령화 시대를 맞아 '100세 보험'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 교보, 동양생명은 100세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최근 내놓았다.

이에 가입하면 보험을 계약한 사람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고인이 100세가 되는 해까지 유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이들 상품은 노령 가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장도 제공하고 있다.

대한생명의 '리치플러스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중증치매나 장애 등 장기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면 연금액을 2배로 늘려 지급한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골든라이프Ⅲ'는 연금을 받다가 심하게 다쳐 중증 장애 상태가 되면 10년 동안 매달 연금 외에 50만~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교보생명은 100세 보험의 경우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생존 기간이 길다는 점에 착안해 '100세시대 변액연금보험'을 내놓았다.

통상 변액연금은 연금 지급 개시 전까지만 주식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인다. 하지만 이 상품은 연금을 주기 시작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그 수익을 연금액에 더해 준다.

고령이 돼 신체가 약해지면 병에 걸리거나 다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질병, 상해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잇따르고 있다.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 입원, 간병 또는 교통사고 피해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특약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한다.

롯데손해보험의 '아이월드 보험'은 만기를 100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이다. /연합뉴스

조회 공시 불친절한 업체 상당수

정보접근 취약한 개인 피해 우려

최근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에 상당수 업체들이 '사유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 접근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초부터 이달 25일까지 주가 급등과 급락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 253건에 대해 75%에 달하는 190개 업체(중복 포함)가 '특이사항 없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08건 중 82건(76%), 코스닥시장에서는 145건 중 108건(74%)으로 결국 이들 종목의 주가는 이유없이 혹은 공개된 정보를 통해선 알 수 없는 이유로 크게 오르내린 셈이다.

'특이사항 없다'고 답한 190개 업체 가운데 현재까지 상장폐지가 결정된 업체는 모두 12곳이다. /연합뉴스